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창조적 영성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일년전 서울의 한 대학교정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세간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반향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필자는 오늘 동역자들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안녕들하시냐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악몽과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번영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은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한 『피로사회』(한병철, 2012)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현재의 삶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앞날은 이처럼 어두운 것일까요?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자부심은 헛된 꿈이었던가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푹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좌절하고 노인은 절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또 다시 청년들이 환상(vision)을 보고 어른들도 꿈을 꾸는 일(골2:28, 행2:17)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활력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근대화의 질곡속에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선배 목회자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와 농어촌에서 지금도 악전고투를 벌이고 계신 동역자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는 한국사회보다 더 암울할 것이라는 예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500만 성도로 줄고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청년대학부의 위축

과 중고등, 유년 주일학교의 감소추세를 살펴볼 때 이런 예측은 단순히 불길한 경고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날 한국교회는 척박한 현실 속에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 있었고 주변문화가 강하지 않았기에 상황대처가 그리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엄청난 양적·질적 우위를 점하고 교회를 주눅 들게 합니다. 그 화려함은 성도들까지 매혹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모르고 자라난 젊은 세대들 사이에 특히 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문화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이자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본 단체 실행위원 및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복있는사람) 등이 있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변화한 현실문화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자연히 매사에 대처가 서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처를 강구하려는 연구조차 부실해 총체적인 대책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갱신하고 첨단 미디어를 채용하는 등 신경을 써보지만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상 문화의 힘이 날로 강력해져 가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힘과 매력을 잃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편, 날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 되어가는 세상 문화는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오염은 물과 공기의 환경오염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꿔야 할 교회가 역으로 문화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회와 문화의 영적 기초가 기독교적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문화에 대해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날 한국교회도 이런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힘을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 삶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계몽활동을 통해 구습에 젖은 문화를 변혁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역사를 선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내부적 위기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회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형식과 첨단 미디어를 예배와 전도에 도입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 문화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소통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위문화나 식민지로 떨어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적 지체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문화를 변화시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 갇힌 기독교문화를 세상 속으로 펼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다차원적입니다. 우선 수적 약화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이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학력이 높고 교회에 헌신했던 직분자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이탈은 더욱 문제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는 교회와 특



히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출석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당장은 아니나 언젠가 다시 나간다(53.3%)’, ‘가능한 빨리 가겠다(13.8%)’, ‘나가고 싶지만 불편하다(12%)’, ‘교회 가고 싶지 않다(21%)’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는가가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질적 약화도 심각합니다. 이른바 명목상 기독교인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른바 제3세대의 명목상 신앙의 위협이 무엇인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목화와 교회의 세속화는 동전의 안팎입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신앙교육 뿐인데 이에 실패하고 있어 교회는 다음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갖게될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땅끝을 보는 비전은 있지만 시간의 끝을 보는 눈이 어두운 탓입니다.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도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지도층과 지성 계층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복음이 들어간 사회와 문화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며 복음은 어느 사회에서나 “손님”인 적은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박해와 반대에 처하는 것과 지금처럼 비판을 넘어 조롱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그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사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교회 비판 여론

지난 날, 세상은 주로 이론적 비판을 통해 신앙의 비합리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회나 목회자, 신앙인의 탈선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반기독교 기사모음”은 구체적인 사례들의 총집합입니다. 아울러 대형교회의 내부적 문제나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 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소위 “개독교 박멸”을 표방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KBS 1TV가 2004년에 공영방송 초유의 본격적인 교회 비판을 했습니다. <선교 120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작진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한국 교회의 향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31.1%)’,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59.3%)’, ‘무응답(9.7%)’이라는 통계 수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특집 방송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자기교파/자기교회중심(40.3%), (2) 교회의 대형화/성장제일주의(23.9%), (3)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4) 비민주적 의사결정/불투명한 재정운영(9.5%), (5) 세습(5.8%). 이 가운데 76.8%를 차지하는 첫 세 항목이 성장 위주의 목회가 낳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간 고도성장으로 인해 양적 팽창은 이루었지만 소수였던 옛날보다 영향력에 있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성장과 이에 부합하는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는 총체적 부적응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태도는 한국교회의 일반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신앙지상주의, 내세적이고 현실도피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역사 의식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은 정통이지만 실천적인 이단의 문제나 교회교육의 약화로 신앙이 열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물량주의에 빠져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고 기복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충족시키는 인간중심적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자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보편성과 연합정신을 잃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다는 말은 곧 질적 저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는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특집도 한국교회의 120년 역사를 “영욕”이라 불렀습니다. 민족 독립과 근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사회봉사에 큰 기여를 했으나 동시에 친일과 독재에 유착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자성을 촉구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한 사실이나 잇을 만하면 밝혀지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회적 반감이 형성된 것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반성과 비판의 겸허한 수용

이런 비판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단편적이거나 감정적이며 피상적인 대처가 아닙니다. 바른 대처는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와 덕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화나 재정적 투명성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위기는 교회의 본질인 경건의 능력과 거룩성 상실에 있습니다. 비판과 공격을 직접적으로 맞받으려 하거나 변명하기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바른 기독교적 봉사를 확립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사회봉사를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나 방책으로 여기고 있다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적 사회봉사는 단

지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착한 삶과 선한 행위를 넘어 복음의 실체를 희생적 봉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근본적으로 섬김입니다. 복음에 빚진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행여라도 시혜하듯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창조성이 약한 것은 문화변혁의 큰 걸림돌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삶을 제약하기 보다는 복음의 참된 자유로 상상력을 활짝 열어 문화적 창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배와 교회 활동을 전도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하는 실용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다양한 문화적 해석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규모에 걸맞은 문화적 영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확고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화에 대한 바른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문화충돌이 잦아지고 심각해진 것은 세계화로 인해 어디서나 다양한 종교와 이념에 입각한 이질적 문화들이 뒤섞인 탓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깊이 의식해야 할 때가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국문화라는 추상적 개념 속에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권위주의와 급진진보 문화, 심지어는 동성애와 엽기문화가 뒤섞여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신념과 가치가 다른 문화와 부딪치며 생기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원주의 문화와 문화전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른 자세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너무 자주 정치화되는 경향이 문제지만 이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방관적 자세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인들은 대체로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에 밝지 못합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사회는 흔히 정서가 지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이 이른바 문화전쟁의 조건이 됩니다.

다원주의 사회 내의 문화전략

오늘의 세계가 다원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된 것도 교회에 부담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이 공존합니다. 다양성에 관한 높은 관심은 세계화된 오늘날의 중요한 문화적 변화입니다. 문화의 복잡한 현상 자체가 다원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보편성을 가진 진리와 가치의 실존에서 옵니다. 이로 인해 가치상대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위세를 떨치면서 교회는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처럼 오랜 역사 속에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가 공존해 온 경우에는 다원주의가 유일한 사회적 공존의 길이라는 압력이 더욱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명백히 다원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제까지 과학과 이성의 객관성의 압박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와 신앙이 세계 평화나 국가적 결속에 장애가 되며 안정된 삶의 최대의 장애나 분열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원주의 사회일수록 확고한 입지를 가진 목소리가 사회적 담론과 실천에서 힘을 발휘하게 마련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사회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를 냄에 있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식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증의 기초는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지만 온유와 겸손한 설득으로 대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벧전 3:15-16)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적 윤리를 강요하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사회내의 존재하는 문화적 긴장에 편승하여 문화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헐고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상호신뢰와 믿음에 기초를 둔 사랑에 입각해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에 중요합니다. 충돌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살롬을 이루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살롬은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비전은 갈등의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에 기초해서 선을 행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복음은 전인적인 회복이요, 삶의 깨어진 모든 부분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념과 세계관적 갈등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뿐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교육과 노동문제는 물론 예술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일수록 다음 세대에 소망을 걸려면 목회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끌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사회가 날로 다변화되고 다원화되는 추세를 이해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성의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나 사적 영역에 천착할 경우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진리의 희생과 섬김에 입각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를 정착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원봉사나 재난구호, 이웃사랑과 기부문화에 모범을 보임으로 사회 자본을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적 담론에 적극 참여하여 기독교적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CBS를 비롯해 다수의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제작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매체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 일반 미디어에도 주목해서 방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작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전문가, 문화인, 예술인, 기획·제작자 양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민단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지난날 YMCA나 YWCA는 시민사회운동의 리더로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두 기구는 좁은 의미의 선교 활동을 넘어서 사회계몽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오락에 걸친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내의 가장 오랜 비정부기구(NGO) 중 하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사회참여와 사회적 무관심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신앙인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결과로 태동한 이 단체는 다차원적 활동과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절제와 근면성 운동에서 공명선거 감시와 대중문화의 음란폭력성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운동이나 정직운동, 교회개혁운동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운동을 펴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시민운동도 대사회적 계

도와 간접적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영역입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와 문화가 건전해지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기독교문화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기보다 치유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인한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치유와 화해의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쉽게 휘말릴 때 이념적 편향성의 위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독교 자체가 정치적 또는 이념적 진보나 보수와 동일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건, 사회문화적 이슈이건, 사안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적 시민교양과 살림의 비전

그리스도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공공의 장에서 사회-문화적 실천에 나설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세계관이나 종교적 확신을 가진 이들에 대해 공평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시민교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확신이 무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세워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성육신에서 나타난 자기비움과 겸손한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섬김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일수록 복음의 초월적 관점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공의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 기독교 신앙임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회참여야 말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성경적 변혁입니다.

기독교 사회문화적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승리주의

(triumphalism)와 패배주의의 양극을 넘어서는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회문화적 책임 앞에서 무책임하고 비현실적 회피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그와 반대로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승리주의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지금처럼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제껏 익숙해진 전도나 사회참여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선교전략의 대가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서구교회를 향해 진심어린 충고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기대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선교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 교회가 탄생한 이래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시크릿』(2012)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힘있는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은은 없어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비긴의 또 다른 충고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중심의 전도와 목회방식에 대한 재고 요청입니다. 특히 “군사작전을 벌이거나 상업적 판매활동을 전개하듯” 교회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도방식이 과연 성경적인지 혹은 특정 선교학 이론의 영향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도 70-80년대의 급속성장시기와 같은 수적 부흥을 기대하며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대처할 바른 전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선도한 기독교 공동체의 공통점은 자신들 시대의 문화의 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원리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다면 증거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삶의 양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사회의 문화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변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문화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적절한 자신감에 입각한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창조적 영성 비전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는 또한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를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순수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이 위기에 대한 바른 대응은 회개를 통해 복음에 충실한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바른 교리와 윤리의 정립이 관건입니다.

그 위에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란 짜여진 기성의 틀 속으로 훈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성숙을 위한 제자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 안에서 창조적 자유를 누리는 것도 성숙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특정한 삶의 방식과 동일시한 나머지 딱딱한 독단주의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숨막히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음의 창조적 영성이 모든 성도들과 특히 청년들을 통해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결코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자발성에 기초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다음세대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신앙적 상상력과 창조성의 여지를 넓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유산들은 놀랍도록 창조적이고 다양합니다. 참혹한 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꾼 상상력은 경이롭습니다. 십자가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가 공적인 장에서 전파되고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공적의 활동을 통해 이루는 선교와 복음화 전략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개혁이 절실히 요구될 때 해내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구한말 한국의 모습이 그러할 때 교회는 민족과 사회개혁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타율적인 개혁은 대가가 큼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의식 개혁과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혁이란 과거에만 집착하는 수구나 미래에만 목매는 급진과 다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개혁교회는 [스스로를] 항상 개혁한다”는 말(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이 구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전통주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Jaroslav Pelikan, *The Vindication of Tradition*, 1984).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도 교조적으로 굳어지면 “죽은 정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창조적인 미래의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세기전 미국사회와 교회는 흑백갈등의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 속에서 이사야의 환상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역사에 남을 연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했습

니다. 그것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세속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위시한 신앙의 선조들의 꿈입니다. 킹은 환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불의가 여전히 만연한 사회를 직면해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지만, 나에겐 꿈이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노예였던 옛 조상들이 꿈꾸었던 자유케 될 것과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상력과 창조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비전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비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속의 드라마이고 창조와 회복의 역사며 재창조의 비전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꿈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금 밝아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비전이 회복되길 빕니다. 교회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vision)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본 칼럼 내용은 CBS 포럼에서 신국원 교수님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 발표하신 내용을 CBS와 신국원 교수님의 동의를 얻어 게재 되었습니다.